

사라진 '가정의 달 특수'

유통가, 코로나19 직격탄... 화훼 평균가 전년비 16.2% 하락 지역 백화점, 5월 인기상품 화장품·여성복·핸드백 매출 부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역 유통가가 '가정의 달'을 맞아 반등을 노렸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졸업식·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연기되면서 대목을 놓친 화훼 농가와 유통업체도 우울한 5월을 보내기는 마찬가지였다.

14일 광주원에농협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이곳에서 5월1~11일 거래된 카네이션 1단(20송이) 가격은 504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6129원)보다 1000원 넘게(17.7% ↓) 떨어졌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영향 속에서도 카네이션 평균 가격은 지난 2018년(4594원)보다 33.4% 올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다시 주저앉게 됐다.

광주 화훼공판장에서 거래된 화훼 평균 가격(1단은)은 지난 2018년 3930원에서 지난해 4808원으로 22.3%(878원) 올랐지만 올해는 4027원으로 16.2% 가량 떨어졌다.

김성주 광주원에농협 경매사는 "일년에 단 두 번 있는 2~3월 졸업·입학식과 5월 가정의 달 특수를 고스란히 놓쳤다"며 "지난 2016년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카네이션 생화 생산·유통업계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화훼 유통가 분위기를 전했다.

6일에 걸친 황금연휴와 선물 수요로 코로나19 회복을 노렸던 지역 대형 유통가 매출 증가폭은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광주신세계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

일까지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5월1~14일)과 비교해보니 증가율 2%를 기록했다.

광주신세계 지난해 5월 가정의 달 주간 매출은 지난 2018년과 비교해 5.0% 증가를 나타냈다.

상품 품목별로 보면 보복소비와 등산·골프 수요가 늘면서 명품(8%), 아웃도어(9%), 골프(6%), 남성 의류(1%) 등이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정의 달 선물로 꼽히는 화장품(-8%), 여성류(-7%), 핸드백(-12%)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해외여행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그동안 주춤한 소비심리가 표출되며 4월30일~5월5일 매출은 3% 증가했지만,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5월6~13일 매출은 1% 증가에 그쳤다"며 "서울 클럽발 확진세가 지역으로 미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주간' 5.9%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올해 단 1% 증가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취업정보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2042명에게 물은 '가정의 달 예상경비'는 평균 46만원으로 지난해 54만원보다 8만원이 줄었다.

응답자들은 기념일별 어린이날에는 지난해보다 5만원 감소한 8만원, 어버이날 28만원(1만원 ↑), 부부(성년)의 날 6만원(3만원 ↓), 스승의 날 4만원(1만원 ↓)을 쓸 계획을 세웠다. 기존 직장인은 지난해 68만원에서 올해 66만원으로 2만원 낮아진 반면 미혼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 48만원보다 10만원이 적은 38만원 지출을 예상하고 있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은행 임직원 5·18 묘지 참배 송중욱(가운데)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50여 명은 14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광주은행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24.96 (-15.46) ↑ 금리(국고채 3년) 0.869 (+0.013)
- ↓ 코스닥 690.57 (-0.96) ↑ 환율(USD) 1228.00 (+4.20)

전력기업 채용문 열렸다

한전·한전KDN 552명... 20~28일 홈페이지 접수

한국전력과 그룹사 한전KDN이 550여 명 규모 상반기 공채 일정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광주·전남 청년들이라면 총 선발인원의 24%에 달하는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노려볼 만하다.

한전은 이날 462명 규모 대졸공채 일정을 공지했다. 지원 기간은 오는 21~28일로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모집 분야는 사무 140명과 기술 322명(전기 265명·ICT 30명·토목 12명·건축 6명·기계 4명·원자력 5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55명, 대전·세종·충남 40명, 전북 29명, 경기북부 26명, 강원 23명, 대구 22명, 경북·경남 각 19명, 충북 17명, 제주 7명 등이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6월8일에 발표하며 같은 달 13일 광주·서울·대전·대구·부산에서 직무능력검사·인성검사를 치른다. 직무면접·종합면접·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 신입사원은 8월에 입사하게 된다.

한전은 입사지원서에 사진·학교·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한다.

한전KDN도 90명 규모(대졸 80명·고

졸 10명) 신입사원 지원을 오는 20~28일 받는다. 최종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8월 중이다.

한전KDN은 이달 광주시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8월부터 3개월 동안 '고졸자 취업지원 사내 인턴십'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인턴십 수요자들에게는 한전KDN의 협력사 채용전형 기회를 제공한다.

한전과 한전KDN은 필기시험 과정에서 각 고시장별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20명을 뽑기 위해 지난 12일까지 진행된 '신입·경력직 채용 서류전형'에는 39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14일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채용규모를 발표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850명), 한국전력(820명), 서울대병원(423명), 한국수자원공사(240명), 한국수력원자력(182명), 국민연금공단(180명), 한국남동발전(180명), 근로복지공단(121명) 등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소기업 빅데이터·AI 기술 도입 지원

중기부, 21일~다음달 12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해 혁신 서비스와 제품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 당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6월12일까지다. 모집 분야는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3개 분야다.

기업 혁신 서비스 분야는 비대면 고객 응

대를 위한 챗봇,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 비대면 업무 솔루션 등을 활용해 생산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는 온라인 식품 배달, 원격의료, 온라인 교육 등 서비스 온라인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업종 특화 공동 플랫폼을 도입 등이 추진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사업 관리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 기업, 4차산업 혁명 대응력 강화

광주상의, 기업 대표·임원 선착순 멘토링 세미나 접수

광주상공회의소는 '2020년도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지원사업'은 광주시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광주 지역 혁신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다. 지역 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날부터 지역기업 대표 및 임원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기술 융복합 멘토링 세미나' 참가 접수를 받는다.

신기술 융복합 멘토링 세미나를 통해 판교테크노밸리 등 4차 산업혁명 대응현장을 방문하고,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AR·VR(가상증강현실) 등 신기술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 멘토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대응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신사업 도입 집중 컨설팅'을 통해 신기술 융복합, 기술-제품-생산공정 고도화, 신제품 개발 및 신사업 로드맵 마련 등을 원하는 지역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신기술 전문가 중심의 컨설턴트 풀을 구성해 파견, 컨설팅(6회)을 무료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광주상의는 기업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학계·지자체·기업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광주지역 4차 산업혁명 대응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광주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몸에 좋은 고흥 햇마늘 사세요"



녹동농협, 올 첫 경매 시작

고흥 녹동농협은 14일 올해 햇마늘(주대마늘) 첫 경매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녹동농협은 이날 녹동농협 공판장에서 첫 경매식을 열고 산지 경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최고 경매가는 4kg당 1만100원

으로, 지난해 같은 날(1만3000원)보다 22.3%(2900원) 하락했다. 올해 마늘은 지난해보다 4만5000t 과잉생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동농협 공판장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줄기가 달린 주대마늘을 거래하는 산지 경매장이다. 주거래품목인 주대마늘뿐만 아니라 양파, 매실, 감자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